

## 英國 科學技術政策의 거듭나기

김기국<sup>1)</sup>

지난 4월 총선 실시 前夜의 영국에서는 그 동안 누적된 보수당 정권의 각종 失政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노동당 정권이 탄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내외의 여론과 기대가 비등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ajor 총리는 자신의 온화하고 합리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 이를 바탕으로 개인적 인기를 끌어냄으로써, 네 번째 보수당 정권을 출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는 정치적으로는 Major가 드디어 "鐵의 여인"-前任 Thatcher 총리-의 그늘로부터 벗어나 독자적인 정치적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뜻한다. 아울러 정책적인 견지에서는 지난 11년 동안 "自由放任"의 깃발 아래 정부의 개입을 극력 억제해 왔던 Thatcher 流의 접근 방식이 앞으로는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크게 선회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전망을 뒷받침하듯 실제로 이미 총선 직후에 단행된 개각에서 Michael Heseltine이 신임 무역 산업성(DTI) 장관으로 취임하고, 에너지 및 중소기업 관련 업무가 무역 산업성으로 이관되는 등 무역 산업성의 조직과 권한의 확대가 단행되었다. 이에 따라 영국의 산업 정책 기조가 이미 변화를 시작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다. 특히 Heseltine이 평소 개인적으로 일본식의 정부-산업 간 긴밀한 협력 체제와 그 성과를 열렬히 찬양해 온 신봉자라는 점에서, 앞으로 무역 산업성이 과거 고도 성장기의 일본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했던 통상산업성(MITI)을 모델로 하여 그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과 중요성이 크게 강화될 것이라는 예측이 설득력 있게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변화는 당연하게 과학 기술 정책 분야에도 餘波를 미치고 있다. 최근 영국에서는 1960년대 초의 과학 장관실(Office of Science Minister) 이래 30년만에 과학 활동의 총괄과 과학 정책의 종합 조정을 담당하기 위한 과학 장관을 새로 임명했다. 신임 과학 장관 William Waldegrave는 영국의 과학 연구를 새롭게 진흥시켜야 할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2차 대전 이후 과학 기술 분야에서 지속되어 온 "정부 不干涉"의 전통을 깨고 과학기술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할 방침임을 밝혔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의 일환으로서, 내년 초에 발간될 예정인 영국의 과학 기술 백서에서는 영국 정부의 과학 기술 정책 관련 우선 순위 및 그 기준이 상당 부분 변화·조정될 것이라는 사실이 과학 장관을 통해서 강력하게 示唆되고 있다. 특히 이 백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받고있는 연구 조직들을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그 焦點이 맞추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따라서 ABRC(Advisory Board for the Research Councils), ACST(Advisory Council on Science and Technology) 등 그동안 과학 예산의 분배, 수상의 자문 역할 등 핵심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영국의 전반적인 과학 기술 정책에 큰 영향을 미쳐왔던 기관들의 위상도 상당한 정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아울러 Waldegrave는 평소 개인적으로 "어떻게 과학 지식을 활용할 것이며, 또 어떻게 기술을 응용할 것인가"하는 문제를 논의하는데 국가적으로 더 많은 관심이 기울여져야 한다는 견해를 표시하여 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정부는 농업, 원자력, 소립자 물리학 등 과거부터 전통적으로 치중해 온 優先分野에의 집착으로부터 과감하게 벗어나야 하며, 그보다는 기초 연구와 응용 연구의 중간 단계에 해당하는 연구 분야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이같은 Waldegrave의 구상은 노동당과 ABRC 등을 포함한 각계 각층의 폭넓은 지지

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각의 정책 구상에 대해 별다른 異議가 제기되지 않고 이렇게 거국적인 공감대가 형성된다는 사실 자체가 영국의 정치 풍토에 비추어 볼 때는 의외라고 받아들여지는 바, 일각에서는 이를 노쇠한 제국의 再起를 위한 안간힘을 뜻하는 것으로 평가절하하는 시각이 존재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과연 영국의 과학 기술 정책은 성공적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인가?

주석1) 동향 분석 연구실, 연구원